'97 세계 석유수급 전망

올해 들어 석유 공급이 증가함에따라 지난해 원유가격을 상승시킨 수급구조의 견조세는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1996년의 세계 석유제품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그리고 *OPEC* 이외의 생산국들의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이것은 *OPEC* 석유에 대한 수요증가와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왔다. 지난해 말, 세계 원유의 수출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25% 이상이나 상승했다.

그러나 1997년에 시장상황은 바뀔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에너지와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非*OPEC*의 석유공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해와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증가는 非*OPEC*의 생산을 190만*b/d* 이상 증가시킬 것이다. 1996년 생산이익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정수입은 탐사와 생산에 추가투자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非*OPEC*의 공급증가는 *OPEC* 석유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다. *UN*의 승인하에 1996년말에 재개된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OPEC* 회원국들에게 가격하락을 막고 시장의 균형을 위하여 생산량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가격은 아마 북반구의 성수기의 높은 가격수준에서 수요저하로 인해 하락할 것이다.

한편 구소련의 석유생산과 소비는 안정적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구소련의 수요는 올해 감소를 멈추고 1996년의 450만*b/d*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있다. *IEA*는 또한 구소련의 석유생산이 20만*b/d* 증가하여 한해 평균 720만*b/d*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

미국에너지 정보국(*EIA*)은 올해 개발도상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4.3%로 잡고 있다. 그리고 *OECD*국가들의 연평균 증가율을 2.5%로 전망하고 있다. *OECD*도 1997년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을 1995년 1.9%, 1996년 2.1%(추정치)보다 높은 2.5%로 전망하고 있다.

*OECD*유럽국가들의 1997년 성장률은 1996년 1.6%보다 높은 2.7%로 추정되었다. 1997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6년의 2.2%보다 높은 2.4%로 추정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의 1996년 경제성장률을 6.3%로 추정했다. *IMF*는 또한 동유럽과 구소련 등 「과도기국가」에 있어서 경제침체가 멈출 것으로 추정했다. 총 경제성장은 1995년의 2.1% 감소와 비교하여 3.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세계 석유수요

높은 경제성장은 1996년 석유제품에 대한 세계수요를 증가시켰다. *IEA*에 따르면, 세계수요는 1995년에 70.1백만 *b/d*에서 평균 71.8백만*b/d*로 증가했다. 세계석유수요는 1993년에 평균 67.6백만*b/d*,1994년에 68.6백만*b/d*였다.

*IEA*는 올해 세계 석유수요는 1.9백만b/d증가하여 평균 73.7백만b/d로 추정하고 있다.

수요가 최근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시아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수요 증가는 선진국에서도 공표되었다.

*OECD*국가의 수요는 1995년에 40.3백만*b/d*에서 1996년에 41.1백만*b/d*로 증가했다. *OECD*의 수요는 1997년에는 41.7백만*b/d*로 잡고 있다. 非*OECD* 개도국의 수요는 1995년 29.8백만*b/d*에서 1996년에 30.7백만*b/d*로 증가했다. 이것은 구소련의 20만*b/d*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올해 수요에 있어서 가장 많은 증가는 또다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지난해와 같이 약 60만 *b/d* 증가하여 석유소비가 9.2백만 *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의 석유수요는 1993년에 6.9백만*b/d*에서 급속히 증가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수요는 1997년에 30만*b/d*증가한 6.6백만*b/d*로 예상된다. 지난 해는 20만*b/d* 증가했었다. 중국의 수요는 1996년에 30만*b/d* 증가에 이어 올해는 20만*b/d* 증가한 3.8백만 *b/d*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와 중동의 1997년 수요는 199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0만*b/d*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프리카의 수요는 1997년 2.3백만*b/d*로 중동은 4.2백만*b/d*로 예상된다.

동유럽과 구소련의 석유수요는 1995년 6백만*b/d*에서 지난 해에는 5.9백만*b/d*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는 수요가 20만*b/d* 감소하여 4.5백만*b/d*로 감소한 구소련의 영향이다. 동유럽의 수요는 10만*b/d* 증가한 1.4백만*b/d*였다. 올해 구소련의 수요는 더 이상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유럽의 수요도 경제회복이 계속됨에 따라 10만*b/d* 증가한 1.5백만 *b/d*로 예상된다.

세계 석유공급

세계석유수요의 급속한 증가는 1996년 *OPEC* 석유생산 증가를 가져왔다. *IEA*에 따르면, *OPEC*의 원유생산은 1996년 1/4분기에 25.7백만*b/d* 증가했고, 2/4분기에는 수요감소에 따라 25.6백만 *b/d*로 떨어졌으나, 3/4분기에는 26백만*b/d*로 껑충 뛰어올랐다. *OGJ*는 *OPEC*의 연평균 원유생산이 25.8백만*b/d*이므로 4/4분기에는 평균 26백만*b/d*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5년에 25.1백만*b/d*보다 증가한 것이다.

*OPEC*의 *NGL*과 콘덴세이트의 1996년 생산은 1995년 2.4백만*b/d*에서 평균 2.6백만*b/d*로 증가했다. *OPEC*의 *NGL*생산은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4/4분기에는 2.7백만*b/d*로 증가했다. 그 결과 *OPEC*의 총석유생산은 1995년에 27.5백만*b/d*에서 1996년에는 28.4백만*b/d*로 추정된다.

*IEA*는 非*OPEC*의 1996년 평균석유생산을 42.1백만*b/d*로 추정했다. 1983년 39.4백만*b/d*, 1994년 40.1백만*b/d*, 1995년 40.9백만*b/d*와 비교된다. 非*OPEC*의 석유생산증가는 세계의 가장 큰 석유생산국가중의 하나인 구소련과 미국의 생산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구소련의 생산은 평균 12.2백만*b/d*였던 1989년 이후로 계속 감소했다. 1995년에는 7.1백만*b/d*였고 지난해에는 7백만*b/d*였다. 미국의 석유생산량은 평균 10.6백만*b/d*였던 1985년 이후로 감소해왔다. 지난해 석유생산은 평균 8.55백만*b/d*로 추정된다.

非*OPEC*의 생산증가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났다. 북해와 노르웨이, 영국은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영국의 생산은 1993년에 2.14백만*b/d*, 1994년에 2.469백만*b/d*,1995년에 2.565백만*b/d*에서 1996년에는 2.633백만*b/d*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르웨이의 생산은 1993년에 2.38백만*b/d*, 1994년에 2.579백만*b/d*, 1995년에 2.782백만*b/d*에서 1996년에는 3.085백만*b/d*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IEA*의 추정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은 40만*b/d* 증가하여 평균 6.5백만*b/d*로 증가했다. 중국의 생산은 10만*b/d* 증가하여 3.1백만*b/d*에 달했다. 그리고 非*OPEC*아프리카의 생산은 10만*b/d*증가하여 2.7백만*b/d*였다. 아시아의 非*OPEC*국가의 생산은 10만*b/d* 감소한 2백만*b/d*였다. 중동의 非*OPEC*생산은 1.9백만*b/d*를 유지했다.

세계 석유공급 전망

*IEA*는 非*OPEC*의 석유생산이 1.9백만*b/d* 증가한 44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1997년 非*OPEC*의 석유공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공처리를 포함한 총 非*OPEC*의 공급은 1997년에 45.6백만 *b/d*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것은 아마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1/4분기에 45.5백만*b/d*, 2/4분기에 45백만*b/d*, 3/4분기에 45.2백만*b/d*, 4/4분기에 46.9백만*b/d*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구소련에서 예상되는 생산증가는 非*OPEC*의 공급에 있어서 감소요인으로 작용되었던 것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틴아메리카의 생산은 50만*b/d* 증가하여 7백만 *b/d*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非*OPEC*국의 생산은 30만*b/d* 증가하여 3백만*b/d*에 이를 것이다. 중국과 非*OPEC*국의 생산은 30만*b/d* 증가하여 3백만*b/d*에 이를 것이다. 중국과 非*OPEC* 중동은 10만*b/d*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가공처리는 1.6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非*OPEC*의 생산증가와 구소련의 생산역전은 *OPEC*이 그들의 현재 생산량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최근 구소련의 생산감소, 세계의 수요증가, 이라크의 금수조치는 많은 *OPEC*국가들이 생산쿼타 만큼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것은 *OPEC* 국가들이 생산상한을 유지하고, 쿼터를 준수하기 쉽게 해 주었다.

非*OPEC*의 공급확대는 올해 수요증가를 맞추게 해 줄 것이고, *OPEC*의 원유와 *NGL*의 생산을 지난해 28.4백만*b/d*에서 28.1백만*b/d* 로 낮추도록 하는 압력요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1996년 2.6백만*b/d*에서 증가한 *NGL* 2.8백만*b/d*를 포함한 것이다. 올해 *OPEC*의 원유수요는 결과적으로 50만*b/d* 감소한 25.3백만*b/d*가 될 것이다. 이것은 1997년의 저장수준이 변함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정한 것이다. 세계의 저장수준은 1995년에 평균 20만*b/d* 증가했다.

OPEC 원유에 대한 수요감소에 대해 *OPEC*은 새로 추가되는 (비록 제한적일지라도) 이라크의 공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현재 이라크는 약 70만*b/d* 정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라크의 생산은 1997년에는 적어도 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어쩌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OPEC*원유는 몇가지 요인들 즉, 세계 석유수요의 증가와 非*OPEC*의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구소련의 생산량 역전은 주요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구소련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수출을 하게 된다면 *OPEC*석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낮아질 것이다. 비축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비축시설강화는 *OPEC* 석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의 예상하에서는 *OPEC*은 가격 하락 없이는 현재의 생산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현재의 높은 가격수준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쿼터를 줄여야 하고 생산을 축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1996년 원유가격의 상승요인, 즉 예상했던 수요보다 높고 非*OPEC*의 예상공급이 낮았던 것이 올해에도 반복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세계 석유수급전망

(단위 : 백만b/d)

	1996					1997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평균
수요										
OECD										
북아메리카	20.4	20.0	20.3	20.5	20.3	20.5	20.1	20.7	20.9	20.6
유 럽	14.3	13.5	14.0	14.5	14.1	14.4	13.8	14.1	14.7	14.3
태평양	7.4	6.2	6.3	7.0	6.7	7.6	6.3	6.4	7.1	6.9
OECD합계	42.1	39.6	40.6	42.1	41.1	42.5	40.3	41.2	42.8	41.7
非OECD										
구소련	4.6	4.2	4.2	4.8	4.5	4.7	4.2	4.2	4.8	4.5
유 럽	1.5	1.4	1.3	1.4	1.4	1.6	1.5	1.4	1.5	1.5
중 국	3.4	3.6	3.6	3.7	3.6	3.6	3.8	3.8	3.9	3.8
기타아시아	8.8	8.3	8.1	9.0	8.6	9.3	9.0	8.7	9.7	9.2
라틴아메리카	6.2	6.3	6.4	6.4	6.3	6.5	6.5	6.6	6.6	6.6
중 동	4.1	4.0	4.2	4.2	4.1	4.2	4.1	4.3	4.3	4.2
아프리카	2.2	2.2	2.1	2.2	2.2	2.3	2.3	2.2	2.3	2.3
非 OECD계	30.8	30.1	30.0	31.8	30.7	32.2	31.4	31.2	33.1	32.0
총계	72.9	69.7	70.6	73.9	71.8	74.7	71.7	72.4	75.9	73.7
공급										
OECD										
북아메리카	11.0	11.0	11.0	11.3	11.1	11.2	10.9	10.9	11.1	11.0
유 럽	6.6	6.6	6.5	7.3	6.8	7.7	7.3	7.2	8.3	7.6
태평양	0.7	0.7	0.7	0.8	0.7	0.8	0.8	0.8	0.8	0.8
OECD합계	18.3	18.2	18.2	19.4	18.6	19.7	19.1	18.9	20.2	19.5
非OECD										
구소련	7.0	7.0	7.1	7.1	7.0	7.2	7.1	7.2	7.4	7.2
유 럽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중 국	3.1	3.1	3.1	3.2	3.1	3.2	3.2	3.2	3.2	3.2
기타 아시아	2.0	2.0	2.0	2.0	2.0	2.0	2.0	2.0	2.1	2.0
라틴아메리카	6.5	6.5	6.4	6.7	6.5	6.8	6.9	7.0	7.2	7.0
중 동	1.9	1.9	1.9	1.9	1.9	1.9	2.0	2.0	2.0	2.0
아프리카	2.6	2.7	2.7	2.8	2.7	2.9	2.9	3.0	3.1	3.0
가공처리	1.5	1.5	1.5	1.5	1.5	1.6	1.6	1.6	1.6	1.6
非OECD합계	24.9	25.0	25.0	25.5	25.0	25.9	26.0	26.3	26.8	26.2
非OPEC합계	43.2	43.2	43.2	44.9	43.6	45.5	45.0	45.2	46.9	45.6
OPEC										
원 유	25.7	25.6	26.0	26.0	25.8	25.0	25.4	25.4	25.1	25.3
N G L	2.5	2.6	2.7	2.7	2.6	2.7	2.8	2.8	2.9	2.8
OPEC합계	28.2	28.2	28.6	28.6	28.4	27.7	28.2	28.2	28.0	28.1
총계	71.3	71.4	71.9	72.6	72.0	73.2	73.2	73.4	74.9	73.7
비축분	-1.6	1.7	1.3	-1.3	0.2	-1.5	1.5	1.0	-1.0	-

*IEA*는 1996년 4/4분기의 세계 석유수요는 연초보다 2백만*b/d* 증가한 73.9백만*b/d*로 추정한다. *OGJ*는 1996년 4/4분기의 총*OEPC* 석유생산을 28.6백만*b/d*로, 세계의 공급은 72.6백만*b/d*로 추정한다.

이러한 수준의 공급은 1.3백만*b/d*의 비축감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1996년 2/4분기와 3/4분기에 석유비축은 1.5백만*b/d*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비축물량이 4/4분기에 급격히 감소되었다 할지라도 1997년에 비축을 다시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IEA*가 수요와 非*OPEC*의 공급을 올바로 예측했다면 *OPEC* 석유생산에 대한 필요성은 1997년 1/4분기에 27.7백만*b/d*로 내려갈 것이다.

OPEC 석유 수요감소에 맞춘 *OPEC*의 쿼터 감소조치는 최근 몇몇 회원국의 생산량 증가로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몇몇 회원국들은 최근 쿼터 이상으로 생산해왔고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꺼릴지도 모른다.

가격

원유가격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급등했다. 정유공장들이 추웠던 1/4분기에 비축분이 급격히 감소해 석유제품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원유가격은 3/4분기에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비축분으로 겨울수요에 대한 선취매가 증가하여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가격은 4/4분기에 평균 겨울날씨보다 더 추워 수요가 증가하여 시장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더욱 더 올랐다.

세계의 수출원유의 평균가격은 1996년 1월에 배럴당 17.39달러에서 4월에 20.50달러로 올랐다. 날씨가 따뜻해져 수요가 줄자 가격은 7월에 18.11달러로 떨어졌으나 11월에 22.32달러로 12월에는 23.30달러로 인상되었다.

1997년의 원유가격은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몇가지 주요한 요인에 의해 결정 될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은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현재의 전망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현저한 경제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석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에 더하여 非*OPEC* 국가의 공급이 올해 원유가격을 결정짓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생산증가의 주요한 곳은 북해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해말의 가격인상으로 재정수익의 증가로 투자가 늘어나 1997년 말까지 생산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은 구소련이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움에따라 이에 대한 *OPEC*의 대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석유가 타지역으로 수출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석유개발

1997년 국제적인 석유탐사와 개발활동수준은 원유가격에 따를 것이다. 지난해 원유가격의 인상은 국제적으로 최근에 줄어들었던 시추정수를 증가시켰다.

미국과 캐나다 외의 실제 로터리시추정수는 1996년에 712개로 추정된다. 이것은 1995년에 국제적으로 759개의 실질시추정수에서 증가한 것이다. 시추정수는 1989년 922개에서 매년 꾸준히 감소해 왔었다. 〈*OGJ,1997.1.27*〉